

불교미술 3대 변천사 한자리에

흥천사 '정통의 맥' 전 4월 30~5월 10일

흥천사(주지 정넵)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기능보유자 故월주 원덕문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제자 소운 김용우 선생의 불교미술입문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연다. '정통의 맥' 전이 4월 30~5월 10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흥천사불화소와 월주교전미술전수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덕문 스님 유품 및 유작(단청, 불화 등) 약20점과 김용우 선생의 단청 및 불화 40점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덕문 스님의 글씨와 선화, 단청문양 작품, 금박산수병풍, 불화작품 등 스님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스님의 화풍을 잇는 김용우 선생의 불화와 달마도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김용우 선생의 제자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된다.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덕문 스님은 서울 흥천사에서 월주교전미술전수원을 개원 많은 불교미



원문 스님 작 금니장사왕도



김용우 작 비로자나후불도

덕문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전 김용우 작가와 제자 작품도

술작가를 양성했다. 또한 (사)단청문양보존 연구회 창립,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전통미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흥천사는 "월주 원덕문 스님의 활동과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흥천사(주지 정넵)는 올 해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더불어 스님의 수

제자인 소운 김용우 선생이 월주 스님께 사사받기 시작하여 올 해 입문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월주 스님이 주석하였던 흥천사 불화소와 월주교전미술전수원이 함께 대규모의 불교미술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3대를 이어온 단청,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불교미술의 역 변천사를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913-24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방송 상담·명상 프로그램 강화

4월 21일부터 봄 개편

불교방송이 4월 21일부터 봄 개편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에서 불교방송은 상담·명상 프로그램 강화, 라디오 불교드라마 부활 등을 편성 불교방송 본연의 면목을 찾아가고 있다.

불교방송은 "불교방송, BBS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청취자들의 재시청 및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법문, 법회, 경전공부 등의 TV 프로그램을 라디오를 통해 재구성, 방송함으로써 TV와 라디오 두 개의 매체를 통해 공부하는 불자, 신행하는 불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편성을 1순위로 두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복을 찾는 108배'는 BBS TV에서 방송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라디오에 접목시켜 불자들의 신생활을 돕고자 했다. 매일 오전 4시 40분부터 20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행복을 찾는 108가지 마음을 선정, 명상음악과 나레이션을 통해 천천히 108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복한 두시'는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을 상담하는 신세대 수행자 원빈 스님과 박근혜 아나운서가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불교의 기본교리와 신행, 다양한 교계 소식은 물론 가정문제, 자녀교육,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청취자들과 직접 마주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은 월~금 오후 2시.

라디오 불교 드라마 '고승열전'도 부활된다. 과거에 방송되었던 라디오 드라마를 새롭게 편집해 청담, 효봉, 동산, 금오, 만공, 용성 스님 등 고승의 일대기를 들려준다.

이밖에도 사색과 포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불교방송은 "치유와 명상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방송에 적극 반영해 관련 스님들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사색과 포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지눌 스님의 원불 특별 전시

송광사,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공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부처님을 오신날을 맞아 '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이하 목조삼존불감)'을 특별 전시한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원불인 목조삼존불을 국사전에서 5월 6일까지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목조삼존불감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셔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감은 모두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 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방이 문짝처럼 달려 있으며, 문을 닫으면 윗부분이 둥근 팔각기둥 모양이 되는데, 전체 높이는 13cm이고, 문을 열었을 때 너비 17cm가 된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부묘사가 정확하고 정교하여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의 장식과 얼굴 표현 등에서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듯이 국적인 면이 보이며, 불감의 양식이나 구조에서는 중국 당나라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불감류 가운데 매우 희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2월 21일에 보물 제217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수난을 겪었던 목조삼존불감은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42호로 승격 지정 되었다. 2000년부터 1년여간 재일교포였던 고준영 선생의 보존수리 끝에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광사는 16국사 관련 많은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061)755-0407 정혜숙 기자

이제부터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명산 중의 명산 오대산

'국내의 명산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오대산 월정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가 643년(선덕왕 12)에 창건한 월정사는 우리나라 문수신앙의 성지(聖地)이기도 하다. 많은 고승대덕들이 머물며 수행과 전법을 이어 온 월정사는 한국전쟁으로 가장 크게 훼손 되었다. 1.4후퇴 때 아군에 의해 10여동의 건물이 전소되었고 양양의 선림원지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범종마저 불타버렸다. 이 좋은 신라 성덕대왕신종보다 주조연대가 앞선 것이어서 매우 귀중한 성보였기에 안타까움이 더한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월정사는 1964년 탄허(呑虛 1913~1983)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면서 중창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불사를 진행해 큰 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대관령을 넘기 전 진부에서 왼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오대산 산록들은 철철이 그 기묘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월정사가 가는 길의 전나무 숲길 또한 일품이어서 절에 가는 길이 곧 극락에 이르는 길인 듯하다.

삼월사로 가기 위해서는 월정사를 거쳐야 한다. 오대산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문수신앙이 월정사와 상원사 그리고 적멸보궁을 바탕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오대산과 그 품안의 절들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산과 절이 둘이 아니게 지켜온 불사는 천년 숲길의 맑은 공기가 되어 찾아오는 중생을 반긴다.

깨끗한 도랑과 경성한 스님

맑은 도랑과 수행하는 스님 그리고 유람에 나선 선비의 마음이 잘 어우러진 시한 수를 보자.

월정유절정(月精幽絕處)
원각도량정(圓覺道場淸)
일조당변영(日照堂邊影)
풍전종경성(風傳鐘磬聲)
타응능견성(他應能見性)
아상미망정(我尚未忘情)
파필제시파(把筆題詩罷)
회두망옥경(回頭望玉京)

월정사가 이누하게 들어선 곳
원각도량이 맑고 깨끗하네.
햇살 비쳐 당번에 그림자 지고
바람 불어 풍경 소리 들리네.
저 스님은 벌써 경성을 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속세의 정을 못 잊고 있네.
붓 접어 시를 짓고 나서
고개 돌려 서울 땅을 바라보노라.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18 월정사 ㉠



월정사의 중심공간인 적광전과 팔각구층석탑(국보제48호) 그리고 석조보살좌상

고려 후기의 문신 이종학(李鍾學 1361~1392)의 시다. 이종학은 가정 이곡의 손자이고 목은 이색의 아들이나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 충절 높은 선비 집안의 명현이라 하겠다. 이 시의 제목은 '오대산(五臺山)'인데 그가 관동지방을 유람하며 읊은 시들을 모은 '관동록(關東錄)'에 수록되어 있고 '관동록'은 그의 문집(인재유고(麟齋遺稿))에 들어 있다.

시인은 월정사에 이르러 가장 먼저 맑고 깨끗한 도랑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원각도량'이라는 말로 절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러보니 햇살과 그림자가 절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으니, 당과 번이 햇살에 비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시각과 청각이 총동원되어 맑고 깨끗한 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월정사를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도랑에서 수행하여 성불을 했을 스님을 부러워하는 심정과 속세의 정을 잊지 못하는 자신을 극적으로 대비시켰으니 이 대목이 이 시의 절정일 수밖에. 그리고 절 풍경을 한 수의 시로 읊었지만, 여전히 속세로 달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어쩔 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생은 꿈만 같은데

'속세의 정을 못 잊는' 것은 이종학도 그의 부친인 이색과 조부인 이곡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유학을 하는 선비로서, 정치인으로서, 관료라는 위치에서 맑은 도랑은 언제나 객관적 대상일 뿐이구나 보다.

강릉귀로직(江陵歸路直)
행객독장음(行客獨長吟)
마영청산정(馬影靑山靜)
인성녹수심(人聲綠樹深)
부생혼사몽(浮生渾似夢)
세사매상심(世事每傷心)
종차당행락(從此當行樂)

나지득지금(那知得至金)

강릉 가는 꿈은길에서
길손이 홀로 긴 시를 읊노라.
말 그림자 푸른 산에 고요하고
인기척은 푸른 숲속만 데서 들려오네.
뎡구름 같은 인생은 온통 꿈만 같아
세상에 매인 마음이 상하곤하네.
이제부터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이종학이 월정사를 들렀다가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을 떠나며 남긴 시다. 역시 '관동록'에 수록되어 있고 제목은 '20일에 월정사를 떠나며(二十日出月精寺)'로 되어 있다.

앞의 시에서 경성한 스님을 부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 보인 이종학은 월정사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절절하게 느낀 모양이다. 시의 앞부분은 오대산의 푸른 숲을 그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윤희 인생에 대한 관조로 이어진다. 특히 '이제부터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대목은 시적으로 절정이라기보다 인생의 참맛을 토해낸 진심한 고백이라 할 만하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짙이 토해냈을 말이지가 말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라는 마지막 구절은 그의 삶과 연관해 묘한 탄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월정사를 떠나며 다시 속세로 가야하는 아득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생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에 정몽주의 살해에 뒤이어 이승인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아 함창으로 유배되었고, 다시 유배지를 옮기는 도중 한 마을에서 살해당했다. 나라는 망하여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선비로서의 꿈은 절개를 지키는 길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유배지에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치기 않았을까?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로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속뜻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뜻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뜻(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로기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션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차분
- *오심,구,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신축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